

광주 지난해 펀드 투자 5명 중 3명 '2030'

2020 펀드 투자자 139명 조사

30대 45.1%·20대 12.7%

응답자 1인당 평균 2.2개 보유

투자자 절반, 투자정보엔 무관심

금융자산 '1억 이상' 37.1%

지난해 광주 펀드 투자자 5명 중 3명 꼴(57.8%)은 20~30대 청년층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동학개미운동'에 빗대어 펀드와 주식 등 금융자산 투자에 대한 인기는 높아졌지만 아직 부동산 투자규모에는 크게 못 미쳤다.

19일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의 '2020 펀드 투자자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민 139명 가운데 '현재 펀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5.8%로 나타났다.

현재 펀드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35.3%)와 합하면 펀드 투자를 해본 사람은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펀드 투자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연령대별로 보니 30대가 45.1%로 가장 많았고, 20대 12.7%, 40대 42.3%로 뒤를 이었다.

광주 시민들은 펀드 상품을 평균적으로 2.2개 가지고 있었다. 이 같은 응답은 지난 2019년(4.2개)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펀드 투자를 하는 목적 1순위는 '여유자금 관리'를 위해서(36.4%)를 가장 많이 꼽았다. '노후·은퇴 대비를 위해서'와 '보유한 자산을 불리기 위해'

서'가 각 18.2%로 뒤를 이었고, '생활자금 마련'과 '절세'를 위해 펀드 투자를 하기도 했다.

일반 펀드 보유자 가운데 투자 원금에 비해 평가 총액이 줄어들었다는 응답률은 6.7%였다. 3명 중 1명 꼴(33.3%)은 늘지도 줄지도 않았다고 말했고, 5명 중 3명 꼴(60.0%)은 투자원금에 비해 늘었다고 답했다.

광주 펀드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연 평균 수익률은 거저형은 22.1%, 적립형 22.9%, 임의형 18.6%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거둔 수익률은 14.9%로 집계됐다.

지역민들은 펀드 투자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투자정보에는 정작 무관심했다.

펀드 상품에 가입할 때 투자 설명서나 약관을 꼼꼼히 읽어봤다는 응답률은 인터넷 사이트(온라인 펀드몰)의 경우 40%, 모바일 채널은 50%에 불과했다. 절반 이상은 약관을 열어보기만 하고 꼼꼼히 읽지 않았다는 말이다.

또 투자자의 절반 넘게(54.2%)는 "운용보고서를 읽지 않거나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 응답자들의 유형별 자산 보유 현황은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응답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 자산과 부동산 자산을 물어보니 부동산이 3배 넘게 많았다.

적금과 펀드, 주식, 채권 등 평균 보유 금융 자산은 9992만원인 반면, 부동산 자산 보유액은 3억 103만원에 달했다.

금융 자산을 1억원 이상 보유한 비율은 37.1%에 그친 반면, 부동산 자산을 3억원 이상 보유한 비율은 45.3%에 달했다. 전체 자산 가운데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다는 뜻이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은 지난해 10월16~30일 전국 25~64세 성인 2500명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였다.

이 결과 '현재 펀드에 투자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21.6%로, 2019년 조사 때보다 13.8%포인트 감소했다.

권순재 재단 책임연구원은 "펀드 투자 비율 응답

감소는 펀드 수익률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투자금을 주식 등 기대수익률이 높은 다른 투자처로 이전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며 "펀드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펀드 상품의 기대수익률을 높이거나 비용이 낮은 패시브형 상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비대면 살' 상품권으로 마음 전하세요 19일 (주)광주신세계 직원들이 1층 매장에서 설 명절 선물로 마련한 상품권을 선보이고 있다. 다음 달 10일까지 상품권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3%까지 추가 증정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092.66 (+78.73)
↑ 코스닥	957.75 (+13.08)
↑ 금리(국고채 3년)	0.974 (+0.006)
↓ 환율(USD)	1102.90 (-1.00)

광주 8곳 '클린뱅크 인증 농협'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농협중앙회에서 선정한 '2020년 클린뱅크 인증 농협'에 광주 8개 농협이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클린뱅크 인증'은 농협중앙회가 매년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자산건전성 관련 핵심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인증 제도이다.

금·은·동 등급으로 구분되며, 이 중 최근 5년 연속 '금' 등급을 인증 받으면 '그랑프리' 등급을 받을 수 있다.

금 등급에 이름을 올린 광주지역 농협은 광주비야농협, 대촌농협, 동곡농협 등 3곳이다. 이외 동 등급 5곳 등 광주 14개 농협 중 8곳이 클린뱅크 인증을 받았다.

강형구 광주본부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각 농협별로 적극적인 연체관리를 통한 건전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며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와 불안정한 경제 환경 속에서 선제적인 연체감축에 나서 클린뱅크 인증 농협을 증대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하도급지킴이 적용 3000만원으로 확대

한전KDN

한전KDN이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을 3000만원 이상 규모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하도급지킴이'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문화 개선과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조달청이 구축한 시스템이다.

한전KDN은 건설공사와 시설공사 소프트웨어(SW) 용역 사업 등에 자체 사업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확대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발주자 임직직접지급제'를 적극 시행하기 위해서 마련했다.

'임직직접지급제'는 공공공사에 대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임금과 대금을 청구·지급하도록 의무화한다. 공정경제문화를 정착시키고 재하도급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난 2019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한전KDN은 적용 기준을 낮추는 것과 함께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하도급 및 대금지급 실적관리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수해 예방' 중·소 저수지 치수능력 확대

농어촌공사 내년부터 48곳

한국농어촌공사가 붕괴 시 하류 지역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규모 저수지에 대한 치수능력 확대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일부 저수지가 붕괴, 하류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적지 않았던 만큼 사전에 이를 예방하는 등 국민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중·소규모 저수지 48곳을 선정, 내년부터 8년에 걸쳐 저수지 뚝 높이기, 물넘이 확장 공사 등 치수능력을 확대하는 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저수지 1곳당 사업비는 180억원 안팎으로 추산되며 전체 사업비는 1조원에 육박할 예정이다.

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자체적으로 유사시 하류부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231개 저수지를 발굴해왔다. 이를 위해 수문학적(기상·기후), 지형학적(환경·지역), 구조학적(시설)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중·소규모 저수지 치수능력확대사업 우선지구 후보지 48지구를 선정했다.

대규모는 저수용량 500만 이상, 중규모는 100만 이상, 그 이하는 소규모 저수지로 통상 분류한다.

공사는 지난해 지역, 기후, 시설 등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1차적으로 하류부의 인명, 재산피해가 예상된 저수지 231곳을 주력년 뒤 최종적으로 48곳을 선정했다.

공사는 앞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대규모 저수지 47곳을 대상으로 치수능력을 키우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대상은 유역면적 2500ha, 저수용량 500만㎥ 이상이다.

현재 예정지와 불합치, 삼교호 등 35곳을 완료하고 11곳은 시행 중에 있으며 1곳은 착공하지 못했다. 공사는 최근 준공한 예당저수지, 삼교호의 경우 준공한 뒤 수질, 농촌경관 개선에도 기여해 생태계 복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최근 19년간(2002년~2020년) 중·소규모 저수지 17곳이 붕괴해 4000여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금호타이어 임단협 결렬...진통 예상

노조 28일 조합원 쟁의행위 투표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2020년 임금단체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쟁의를 예고해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는 19일 임단협 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쟁의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오는 28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재적 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 부분파업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해 7월 분교협 상관계 이후 임단협을 이어왔으나 이날까지 서로의 의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노조는 2010년 이후 5년간 워크아웃 동안 40% 상당의 임금이 삭감됐고, 중국 더블스타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2018년 특별합의를 통해 상여금 250%반납과 각종 복지축소, 인력구조조정을 실시해왔다는 점에서, 2년 연속 영업이익 발생을 근거로 임금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노조는 임금 5.34% 인상과 충고용 보장, 중

국 더블스타 인수 이후 2019년 반납한 상여금 200%에 대해 기준 재설정, 통상임금(상여) 소송에 대해 과거분과 미래분 구분 교섭 요구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호타이어 측은 2019년 2분기 187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 10분기 만에 영업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1분기 다시 적자로 돌아선 데 이어 2분기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는 입장이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둔화, 국내외 완성차업체의 섀다운 등으로 신차용 타이어 공급이 감소하고, 교체용 타이어 수요도 줄면서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 지난해 3분기 439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흑자 유지를 이어가려고 하지만, 코로나19 위기에 미국 반덤핑 관세 이슈까지 겹쳐 경영 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회사가 당면한 대내외 경영환경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노사 상생을 통해 생존방안을 마련하고 미래성장을 위한 반동의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Passion
Vision
Truth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2021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부 편입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정원내	정원외	외국인
인문	신학과	13	1	
	한국어교육학과	4		4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15	1	
사범	유아교육과	2		1
예능	음악학부	8		

▶ 전형일정
·원서접수: 2021. 1. 12(화) ~ 25(월)
·전형일: 2021. 1. 29(금) 오후 2시

대학원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26
		성경연구학과(Th.M.)	2
		신학과(Ph.D.)	3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3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3
		신학과(Th.M.)	4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8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6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재활심리치료학과(M.A.)	5
		평생교육학과(M.Ed.)	8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17

▶ 전형일정
·원서접수: 2021. 1. 18(월) ~ 27(수)
·전형일: 2021. 1. 29(금) 오후 2시 30분

신학대학원 편입모집

▶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0명(주·야)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자
3학년	0명(주·야)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자

▶ 전형일정
·원서접수: 2021. 1. 18(월) ~ 27(수)
·전형일: 2021. 1. 29(금) 오후 3시

www.kwangshin.ac.kr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6